

96 한국채용박람회

한자리에 모인 취업정보 페스티벌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대륙관에서 열린 96한국채용박람회

이번 공개채용박람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한금융 등이 참가했으며 오는 22일에는 '제2차 96 하반기 대졸정기공채'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애초에 참여대상인원을 5만명으로 잡았는데 첫날 11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호황은 실로 자율적 인사채용의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대륙관에서 (주)리크루트의 주최로 열린 '96 한국채용박람회'의 한 관제자는 이번 행사가 앞으로의 인사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채용비용과 시간의 절약과 학생들의 폭넓은 취업기회 및 적합한 기업선택의 기회부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러진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17개 기업으로 롯데그룹을 비롯한 4개의 대기업과 동서증권, 신한금융 외 6개 단일기업, (주)구영, 두일산업 등 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아래 표 참조) 참가기업 채용 총인원은 3천여명에 달한다.

(참가기업안내)

대기업	
기업명	채용예정인원
롯데그룹	450명 내외
해태그룹	350명 내외
이랜드그룹	250명 내외
두원그룹	200명 내외
단일기업	
기업명	채용예정인원
동서증권	110명
한국IBM	200여명
제일화재	00명
YJ그룹	70명
대우자동차	250명
인정정보	00명
제일전기	00명
신한국당	00명
중소기업	
기업명	채용예정인원
미키인더내셔널	00명
(주)구영	28명
한글MUL	30명
두일산업	80여명
영일업	45명

효율적 정보로 시간절약효과 하루 11만명 참가 큰 호응

국내 30대 그룹은 최근 3년간 매년 10~15%씩 채용규모를 늘려왔으나 올해 하반기 대졸자채용시장에선 각 기업들은 경기침체 이후 고비용 고효율의 처방으로 인원감축을 내세워 작년과 같은 규모로 채용규모를 확정했다. 그러나 취업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 입사경쟁률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하반기 10월 채용기업의 대졸사원 정기공채행사인 이번 행사에선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는 듯 4일 하루동안 행사장을 방문한 인

원은 11만명을 넘어섰으며, 부산과 전라남도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올라와 행사장은 발디딜 틈없이 붐볐다.

행사장 내에는 각 기업의 마크가 부착된 부스가 설치되어 이곳에서 취업 상담과 입사방법 안내,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등 실시했다. 취업희망자들은 미리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러 부스들을 방문했고 중소기업 부스에선 즉석 면접을 실시했다. 중소기업 참여업체인 (주)구영은 4일 하루동안 2백여 명의 공채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

에선 1차 면접만을 실시하고 본사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기업측의 예상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공채면접은 취업희망자들의 열의로 폐장시간까지 꾸준히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 이어 제2차 96 하반기 대졸 정기공채는 오는 22일부터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가 10월달에 선채용하는 그룹들만 참여한 것에 반해 2차 행사에는 삼성, 현대, 대우를 비롯한 50대 그룹사, 총 8백여개 채용기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루어질 정기공채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개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조성천(국민대 경영학 석사 4기)군은 “효율적으로 여러기업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여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사”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취업, 이렇게 준비하라 선채용기회, 자율적 채용방식 주지해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첫주에 하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공채를 실시하지 않고 10월달에 선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공채중소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기업이 선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채용 기업의 채용규모는 대부분 1백명 내외인데 이렇게 채용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추천제에 의한 채용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선채용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일반기업에 비해 색갈이 분명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 선채용을 해온 기업들이라 취업예정자들 사이에 어느정도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취업예정자들은 이러한 선채용 기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선채용인원을 합해보면 그룹사 전체선발규모의 과반수에 이르는 등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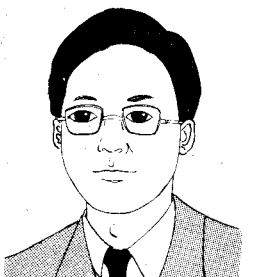
또한 기업들은 과거 획일적인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자율적인 채용방식으로 채용제도를 변경하고 있어 이번 '96한국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채용박람회가 계속적으로 개최된다 한다.

취업예정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정확하고도 신속한 채용정보를 입수해 이러한 자율적 채용방식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겠다.

강단시론

김 중 섭

(언어교육연구원 교수)



요사이는 크고 작은 일에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색할 정도로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어쩌면 그 구호가 유행어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하게 된다. 단순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외국인의 모습에서만 세계화·국제화를 외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하는 노파심도 떨칠 수도 없다. 이제는 각자 맡은 분야에 있어 냉정하게 세계화, 국제화에 관해 정리를 하고 평가도 내려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2의 세계화, 국제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말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해외동포 포함)들을 위한 한국어(한국학) 교육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어 그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국제화와 문화적 토양에서 한국어 과정도 특성화 시켜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국력의 신장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눈에 띄게 발전되어 왔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연세대학교가 1959년 4월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게 되면서 1996년 현재까지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10여개의 종합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

고 있다. 또한 다른 대학교에서도 뒤질세라 한국어교육과정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 그외 언론사 부설 어학원 및 사설 전문학원 등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연간 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해외의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1897년 최초로 피터스부르크(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된 이후 올레로 꼭 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겨우 3개 대학에서만 강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유럽, 캐나다, 호주, 멕시코, 남아메리카, 대만, 중국, 동구권,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200여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해외동포의 종교단체 등에서 개설한 한국어 학교까지도 넣는다면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수교한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교전의 3개 대학에서 이제는 북경대학을 위시하여 주요 25개의 대학교에 정식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우리말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학교 한국어 교육의 경우만 보면 1991년도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자매 대학교인 영국의 뉴캐슬대학교 학생 3명을 위해 처음 개설하였다. 그 이후 1993년 4월 언어교육연구원에 정식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3백16명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익혔다. 연간 학생 수도 1993년 33명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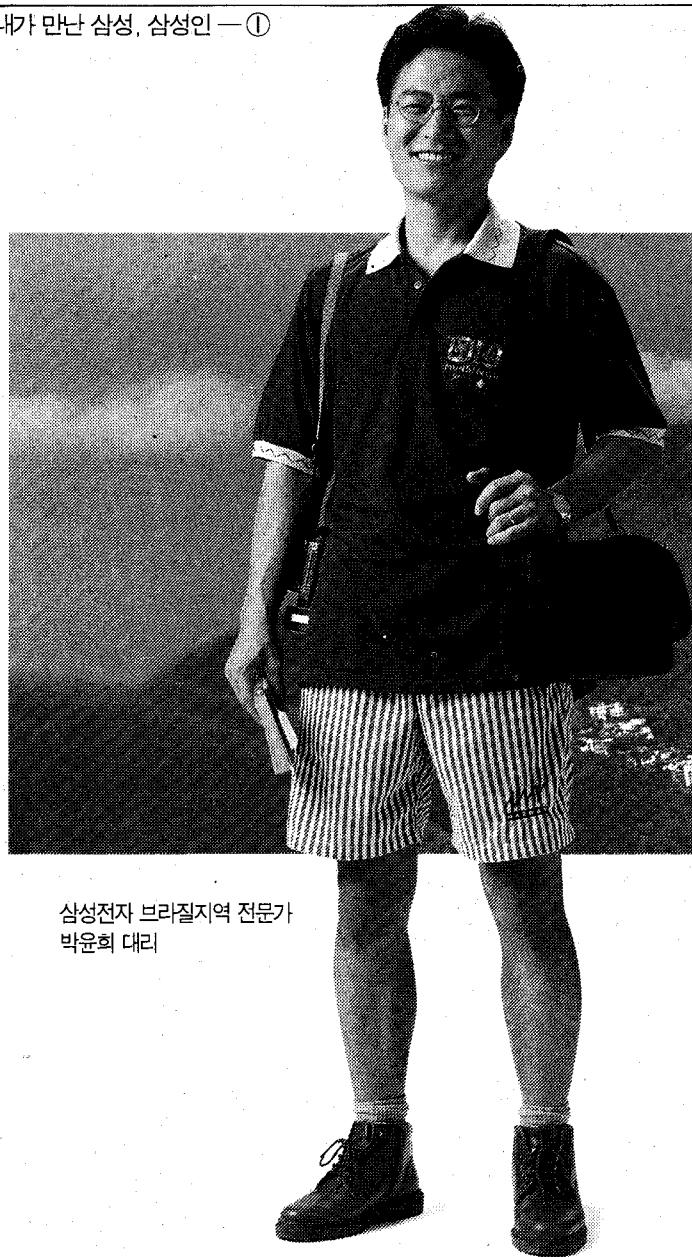
세종대왕이 주신 기회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계화라는 큰 명제하에 1995년 12월 정부초청 장학생 증원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0명-100명씩 증원, 2000년부터는 400명 수준 까지 확대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00명을 초청한다는 실로 방대한 우리 학문의 세계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학문의 세계화에 우리학교가 선두주자에 서서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우리말은 물론 우리 학교의 학문을 마음껏 소개하고 연구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문화의 세계화 작업에 우리학교가 선두에서 있다는 것을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랑 뒤에는 그 못지않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지만 한글날에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우리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이치림 커다란 기회(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를 주신 세종대왕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며 중요한 의미가 되새겨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과실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 일은 어느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로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첫걸음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지만 한글날에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우리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이치림 커다란 기회(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를 주신 세종대왕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며 중요한 의미가 되새겨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과실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 일은 어느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로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첫걸음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만난 삼성, 삼성인 —①



삼성전자 브라질지역 전문가 박윤희 대리



브라질에서의 1년을 생각할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리오 데 자네이로항, 삼바축제의 열기, 끝없이 펼쳐진 아마존의 밀림 - 그리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서른살때의 얼굴이 있다. 삼성의 지역전문가로 파견되어 있던 삼성전자 박윤희씨 - 복잡한 업무 때문에 왔으리라고 짐작했던 내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질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이 1년간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무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회사원이 된다는 것은 몸바꿔쳐처럼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일거라고 믿고 있던 내게, 그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줄 아는 회사. 그리고 패기와 정열로 그 꿈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 - 이것이 브라질에서 만난 삼성, 삼성인의 모습이었다.

한국 외국어대학 포스트그라드 3학년 김해영

삼성엔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언어와 문화 관습 등 현지 경험을 쌓아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지역전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